

한글교실에서

-그럼 멋진 여자가 바로 앞에서 걸어가고 있다. 이럴때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한글교실에서 동사에 대해 공부하다가 모두들 재미없어 하갈래 화제를 돌린다. 역시 응큼한 남자들이 여자에 대해 갖는 관심은 지대하고도 지대하다.
 -와우 코케콜라- (??이게 뭘 말이어?) 네팔인 모한씨가 제일 먼저 소리쳤다.
 -예쁜 여자입니다- 순진한 스리랑카 친구 니말의 이야기다.
 -아름답다!
 -오! 섹시 걸!
 이것저것 많이도 나온다. 이쯤 왔을 때 또록 또록 눈만 굴리던 우리 미안마친구 먼루웬이 오른팔을 번쩍들었다가 힘있게 당겨 내리면서 자신만만한 소리를 한다.
 -야! 죽·이·는·데!
 다들 어리둥절한데, 나 혼자만 방바닥을 두들기고 웃느라고 눈물이 쏙 빠진다.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에서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운영에 보태 쓸 수 있도록 재정보조를 해주셔도 좋고요, 비는 시간을 이용하여 상담이나 생활관리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특히 외국인노동자를 상대로 한국어교육을 해 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시간은 일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입니다. ☎ 032-651-8351, 032-668-0077

외환은행 239-19-12240-4
 국민은행 202-24-0386-372
 농 협 130012-56-005401
 주택은행 652302-93-112681
 우 체 국 104166-0061666 예금주 : 예영주

1996

부천 외국인 노동자의 집 소식지 1호

함께가자,우리의길은



421-112 부천시 원미구 원미2동 184-5 22/8 부천 외국인 노동자의 집 ☎ 032-651-8351

1월이라도 중순이 지나고 나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가 어색하기만 합니다. 오랫동안 찾아온 추위여서 그런지 더 움츠러 드는군요. 원미동에 버티고 있는 저희 사무실에는 허술한 창문틈으로 들어온 날랜 바람이 의기양양하게 휘젓고 다니는 통에 울겨들어 영 아슬하기만 합니다. 저희 부친의 국인노동자의집 이 문을 연지도 벌써 아홉달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좀 그럴듯한 소식지를 내야겠다' 하는 욕심에 걱정으로만 세월을 보내다가 결국은 한번도 못내고 해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방법을 달리 하기로 했지요. 보잘것 없더라도 꾸준히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이 저희 소식을 기다리시는 여러분께 도리가 아니겠는가 하고 말입니다. 어디 식당이라도 들어가면 한쪽 벽면에 의뢰껏 걸려 있는 글씨가 있지요.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끝은 창대하리라 성경구절인것 같은데 식당주인은-이 식당으로 돈을 벌어서 나중에는 큰 부자가 되리라-쯤으로 풀이하고 걸어 둔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흔한만큼 하찮게 보아 넘겼던 말인데 이렇게 부족한 시작을 할 때는 위안을 주기도 하는군요.

그동안 붓물처럼 밀려드는 상담으로, 설새없이 터지는 사고로 숨 돌릴 틈도 없이 일년 가까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뒤처다꺼리만 하다 보니 이미 꺾어진 상처를 치료하느니 보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외국인노동자 자체모임과 외국인노동자를 위해 상담활동을 하는 여러 상담소가 모여 어떻게 하면 그 원인을 제거 할 수 있을까를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관련 단체 모두를 담을 수 있는 틀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대책협의회(외노협)라는 이름으로 전체 모임을 꾸리고 공동사업을 펼치기로 한 것이지요. 앞으로 외노협에서는 불법체류자를 사면시키고, 불법체류자 문제보다 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산업기술연수생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같이 노력할 것입니다.

불법체류노동자가 왜 생기느냐를 물으면 우리는 흔히 -못사는 나라 사람들이 돈 벌려고 들어와서 안 돌아가니까 그렇지않을까요 -라고 의문섞인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속에는 왜 못사는 나라와 잘사는 나라가 있고, 또 못사는 나라 사람들은 어째서 부모형제를 떠나서 잘사는 나라에 와서 육 먹고 배 맞으면서까지 일을 하려고 할까 하는 의문도 같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신문이나 TV/뉴스를 보다가 연수생 몇만명을 더 들여오네,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어떨지 몰라도 '부친외국인노동자의집' 에 관심이 많은 우리들은 귀가 솔깃해 잡니다. 그러나 그 뜻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게 되지요. 함께가자우리아길울 에서는 앞으로 이런 소식을 전해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고 마는 외국인 노동자에 관련한 이야기들이 소식지에 담을 생각입니다.

작년(1995) 1월 9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새해 벽두부터 참 떠들썩 했었지요. 명동성당 입구에서 네팔인 산업기술연수생 13명이 농성을 벌였습니다. 우리도 인간이다 인간 대접을 해 달라.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연수생 이라는 이름으로 저임금에 노예노동이 웬 말이나 등등. 우리 땅에서 벌어진 일인데도 전혀 모르고 있던 우리들은 뒷통수를 얻어 맞은 느낌이었습다. 그 사건이 있은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나아진 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9일에 다시 한번 같은 자리에서 옆쪽에 실려있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들은 새까맣게 물려들었는데 방송이나 신문에는 눈을 씻고 찾아도 보도를 안하더군요. 참으로 추운 겨울입니다.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명동성당농성 1주년에 기하여
한국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우리는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로서 한국국민 여러분께 우리의 의견을 알리고 어려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인권과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얻기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한국에 인력난이 심하고 외국인력 도입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한국정부는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관공비자로 입국해서 노동하는 것을 암암리에 묵인했으며 두차례에 걸쳐 합법비자를 발급하기까지 했습니다. 단, 전체적인 부족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정부는 인력도입에만 신경을 쓸 뿐 그로인해 발생한 불법체류자의 문제를 풀려는 노력은 안했습니다. 나날이 커져가는 문제점을 짚기위해 1994년 초 경실련에서 농성을 했지만 개선된 점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 후로 산업연수생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이 제도는 불법체류자의 경우보다도 더 많은 문제점을 낳아 그 결과 1995년 1월 9일 명동농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성자들은 당시 약속받았던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재배치받은 사업장에서 이탈하여 다른 사업장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전과 같은 뿐, 변한 것은 없습니다. 낮은 임금과 부당한 대우때문에 연수생들의 사업장 이탈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연수생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편에서는 연수생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불법체류노동자를 연행, 강제출국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불법체류노동자가 새로들어오는 연수생보다 한국식 노동에 숙련되어 있으며 기업에도 더 도움이 될것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들어와 있는 불법체류 노동자와 연수생의 문제를 먼저 풀고 활용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며, 그 부족분에 대해서만 새로운 인력도입을 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네팔인 13명이 명동성당앞에서 농성했던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날의 기억을 되살리고 아직까지도 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알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한국정부에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것과 외국인노동자와 관련한 새로운 제도를 만들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1월 9일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일동

- NEPALESE CONSULTING COMMITTEE (네팔인 노동자회)
- SRI-LANKAN ORGANIZATION IN KOREA (스리랑카인 노동자회)
- BANGLADESH COMMITTEE (방글라데시인 노동자회)
- 중국노동자협회



상담 사례

산재 · 폭행

부살 (BAL KRISNA BHUSHAL 34세)

저는 작년 8월 30일부터 인천에 있는 정진플라스틱에서 일하다가 11월 5일 왼손 중지와 약지의 첫째마디까지 잘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일요일 특근을 하던 중이라 다른 사람들은 출근을 안했던 터라 옆공장 아저씨가 저를 병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나중에 사장님이 병원에 왔는데 누가 이런 비싼 병원에 데려왔느냐며 화를 내더니 바로 작은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큰 사고가 났을 경우 대부분은 한달 넘도록 입원치료를 하는게 보통입니다만, 6일동안 입원치료를 받고나니 사장님이 무조건 퇴원하라고 해서 12일날 퇴원을 했습니다. 며칠 후 사장님께 산재보상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무척 화를 내면서 저를 때리더군요. 다시 한번 그따위 소리를 하면 경찰을 불러서 넘겨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다음날부터 한손은 붕대를 감고 나머지 한손으로만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상담소에 문의전화를 했는데 사장님이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밖에 소문내고 다닌다며 저를 또 때리고 협박했습니다. 그 날은 무척 많이 맞았는데 나중에 보니 이가 흔들리고 입술이 터져 얼굴이 흉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하고서도 일을 계속했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달래려고 그랬는지 월급을 많이 줄테니까 야근을 좀 해 보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알고보니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12월 한달을 거의 야근으로 보냈는데도 정작 약속은 안지키고 판소리만 했습니다. 해가 바뀌어 1월10일날, 다시 사장님께 약속대로 야근수당을 줄것과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장님은 50만원을 줄테니 다른 회사로 가든지 네 나라로 돌아가든지 맘대로 하라며 먹살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사고 보상금을 50만원에 합의한다고 쓴 합의서에 싸인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옷도 제대로 못 챙기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 정진 플라스틱은 상시인원이 5인이상인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었다. 사장을 설득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어느 쓰레기통에 버려졌을까? ▶

임금체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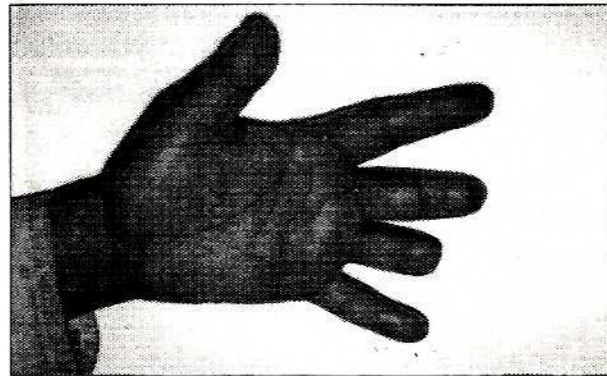
인드라 (INDRA 24세)

인드라씨는 경기도 포천에 있는 고려인삼공장에서 8개월 일하는 동안 한번도 월급을 받아 본 적이 없다. 사장은 항상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뿐 도무지 줄 생각을 안했다.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사장은 자신에게 통보없이 그만둔것을 트집잡아 월급은 당연히 안줘도 된다고 계속 체불하고 있는 상태이다. 자진해서 처리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의료

디푸 (DEEPU PARIYAR 25세)

디푸씨는 1993년에 입국하여 지금까지 한 회사에서만 3년 가까이 일한 성실한 청년이다. 일년쯤 전부터 허리에 통증을 느꼈으나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했는데 차츰 심해져 거동조차도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다. 우리집에 도움요청을 해 왔을 때는 이미 결핵성 척추염이 악화되어 척추뼈 2개가 절반 정도씩 썩어 버린 후였다. 우선은 수술비 마련이 문제였는데 신천연합병원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1월 4일 끝번째를 잘라서 척추에 이식하는 대수술을 했다. 현재는 이식한 뼈가 잘 고정되도록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근5개월 동안은 꼼짝없이 누워서 지내야 하는 형편이다. 이처럼 초기에 발견했으면 어렵지 않게 치료할 수 있는 병을 의료비 문제나 혹은 언어소통문제로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의료 대책이 시급하다.



1996년 현재 외국인노동자의 현 주소는 어디인가

우리가 문민정부의 잣대를 이야기 할때 가장 기초적 토대라 할 수 있는 인권보장, 사회평등, 동등한 노동의 권리등이 너무도 요원한 집단이 현재 우리사회 한 부분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있다. 세계화의 목적을 드높이고 있는 현 시기에 일년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있는 한국정부를 향해 외국인노동자들이 눈물로 인간임을 외치고 있다. 95년 신년 벽두에 쇠사슬로 온몸을 두르고 자신들의 처참한 상황을 두려움과 공포속에서도 의연히 외치던 젊은 청년들이 있었다. 코리안드림에 인생의 황금기를 걸고 고향과 부모를 등진채 만리타향을 건너왔던 두 눈총총한 이국청년들이 새로운 문화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한국의 가장 열악한 밑바닥 경제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울분과 증오로 몸을 떨었다. 현지에서의 계약과는 판이하게 다른 노동계약과 생활조건이 그러했고, 한국인 관리자들이 대하는 인간적 모멸감이 그러했다. 또한, 이땅에 들어오기까지의 엄청난 값이 이들의 깃들린 어깨를 더욱 무겁게 했다.

이들의 요구는 단순하면서도 지극히 당연한 최소한의 요구였다. 임금을 내손으로 받고싶다(현직송금등의 명목으로 돈을 만져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여권은 우리가 보관해야 한다(회사에서 이탈방지 목적으로 압류), 강제노동과 비인간적 대우를 하지마라(몸이 아파도 잔업에 참여까지 본인의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이, 또한 폭행과 폭언등이 만연했다), 임금을 올려달라(현지에서의 계약 금액의 절반도 안되는 100~200달러 정도였다), 산재보험 적용하라(불법체류자는 94년 2월부터 산재적용이 되었으나 오히려 연수생은 정식 '노동자'가 아니어서 해당 안됨), 의료보험혜택을 달라(의료보험적용이 안돼 몸이 아파도 비싼 의료비를 감당못해 병을 키우는 경우가 허다했다), 통신이나 서신교환, 외출등 사생활을 보장하라(연수생들은 바깥출입이 거의 통제되었고 심지어 서신왕래나 전화도 금지되는 회사가 대부분이었다)등 21세기를 코앞에 둔 현대사회 한국이 14-5세기 봉건노예사회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어이없는 내용들이었다.

정부는 이들의 생존을 위한, 무엇보다도 인권적 보장에 대한 의침보다는 의신을 통한 타국의 반항과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에 일단은 움추러들며 대부분 모두 수용하고 95년 3월 1일부터 요구조건 모두를 전면 시행케 하였다. 이들의 해방감은 (실제 이들은 모든 억압에서 당장에 자유로

운 새가 되는줄 알았다) 잠시였고 농성 참가자는 모두 강제로 뿔뿔이 흩어져 동료들과의 만남이 모두 차단된 채 기존의 조건이 반복되었다. 외부의 더욱 강해진 차단, 비인간적 대우, 잔업수당 미지급, 의료보험 산재보험 미적용, 비인간적인 대우의 지속등으로 하나 들쭉 사업장을 이탈하게 되었다. 이들의 분노와 절망감은 새로운 일터를 찾아 바빠 움직이는 기운에서도 잦아들지 않았으며 다른 연수생과 이제는 같은 처지의 불법체류자들에게도 한국정부, 한국인에 대한 원성으로 누적되고있다.

95년이 저무는 12월 하순에 연수생의 실태를 구체적인 자료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임금을 아직도 직접 지불받지 못하는 경우가 13%, 여권을 아직도 회사에서 소지하는 경우가 98%에 이른다. 또한 폭행이나 강제노동을 경험하고 있는 경우도 33%에 이르며, 임금도 24% 이상이 최저임금에서 못미치는 340\$ 미만을 받고있다. 현재 가장 시급한 의료보험 적용이나 산재적용도 대부분 시행되지 않고 있다.(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연수생 120명에 대한 표본조사)

이 표본조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한국정부에 바라는 건의사항은 첫째, 한국인 노동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싶다, 둘째, 연수생제도등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관련제도를 개선하여야한다. 셋째, 임금을 올려야한다. 넷째, 자유로운 회사이동등을 포함한 노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다섯째, 인간적인 대접을 받아야 한다등으로 나타났다.

이제는 말 뿐인 세계화의 허울을 벗어나야 한다. 도덕성과 책임감이 결여된 어떠한 정책도 오래 지속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전체사회의 발전전망도 흐리게된다. 민간외교만으로 그나라의 국가적 요류를 치유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모든 이의 인권은 조건없는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적 이해의 정도가 높지 못해 뒷받침되고 세계의 눈이 따갑게 지켜보고 있음을 한국정부는 직시하여야한다. 모순된 제도에 의해 불법체류자가 양산되고, 새로운 인력 도입을 추진하며 숙련된 노동자들을 강제출국시키는 모순의 악순환을 이제는 중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더 이상 받아들여질 수 없는 모순된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제도는 철폐해야 하며 그 결과 양산된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는 사면하여 자유로운 노동의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사무국장 예영주